

## 코로나19와 가정폭력: 팬데믹의 젠더화된 효과\*

김효정\*\*

### 초 록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세계적 재난으로서 코로나 19 팬데믹이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여성주의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각국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한다. 다음으로 재난과 젠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사회에 내재된 젠더 규범과 질서가 어떻게 재난의 효과를 젠더화하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위기에 대한 위계적 인식, 헤게모니적 남성성, 근대적 공사 이분법의 세 가지 개념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간주하려는 오래된 시도가 팬데믹 시기에 어떻게 용이해지는지 논증한다. 결론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이 성평등의 실현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젠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주제어 : 코로나19, 팬데믹,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재난

\* 이 연구는 2020년 7월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제4차 코로나 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의 토론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확장하여 발전시킨 연구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hjkim@kwidimail.re.kr)

## I. 서 론: 팬데믹의 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사회구조적 차원의 변화와 함께 개인의 일상적 삶의 방식에 심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경을 넘는 여행과 이주가 제한되었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감염병이 야기한 정치, 경제, 문화적 변화들로 인해 지난 30년 간 글로벌 경제성장을 이끈 세계화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한국은행, 2020).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조치들은 개인의 삶과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행 제한, 외출 자제 등 새로운 생활 규범이 일상화되었고, 디지털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사소통이 증가하면서 공적 공간에서의 활동은 위축된 반면 사적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은 크게 증가하였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사회 전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 한국은행, 2020; McKinsey&Company, 2020; UHC2030, 2020).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질서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과 그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존재함에도 아직 잘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팬데믹의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코로나19의 젠더화된 효과, 특히 가정폭력<sup>1)</sup>, 여성에 대한 폭력과의 연관성이다. ‘아프면 3-4일 쉬면서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코로나19의 대표적인 방역 지침은 공중 감염병에서 안전할 수 있는 개인적 공간으로 가족이 거주하는 집을 상정한다. 이때의 집은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적인 활동을 자제하며 사적인 영역으로 후퇴하는 개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최후의 공간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감염병으로부터 공공 및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족 단위 자가격리의 양상과 그 결과의 예측에는 폭력이 개입된

1)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협소하게는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넓게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을 포함한다. 본 글은 남성이 경험하는 폭력, 자녀 학대, 동성간 폭력도 가정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하면서, 재난과 폭력의 젠더적 속성과 팬데믹과 가정폭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상 전략적으로 남성 가해자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초점을 맞춘다. 본문에서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은 맥락에 따라 혼용되거나 동시에 언급되며, 두 용어 모두 불평등한 젠더 권력 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의 맥락에서 집이 중심이 되는 생활로의 변화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해자와의 접촉 시간을 늘려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집에 머무르라는 방역원칙이 오히려 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안전한 삶을 추구할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상황과 대치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UN, WHO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팬데믹의 발생과 지속이 가구 내 긴장 수준을 높이고 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증가시켜,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고 전체적인 성평등 수준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UN Women, 2020; WHO, 2020). 팬데믹 시기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재 한국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의 방향은 주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젠더 불평등의 맥락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학술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실증연구 또는 이론적 논의 역시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재난을 젠더와 무관한 사건으로 바라보는 경향과도 연관된다. 기존의 많은 재난 연구에서 젠더는 고려되지 않거나, 성별에 의한 개인적 속성의 차이로 협소하게 인식되었다. 전자의 관점에서 재난은 젠더에 관계없이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되며, 후자의 경우 재난의 성별화된 효과는 여성과 남성의 현재적 조건에서 비롯된 개인적 차이로 축소되어 젠더 권력, 젠더 규범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와 해석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여성을 재난에 취약하게 하는 젠더 구성적 측면을 밝히고 젠더 관점에서 재난을 분석해야 함을 주장하는 여성주의적 연구가 제출되었기도 하였으나(허라금, 2012) 아직까지 재난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주류 정책의 흐름에서 젠더는 중심적인 분석의 범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글은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를 야기한 재난으로서의 코로나19 팬데믹과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여성주의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위기에 대한 위계적 인식, 헤게모니적 남성성, 근대적 공사 이분법의 세 가지 개념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과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그 함의에 대한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국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한다. 다음으로 재난과 젠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사회

에 내재된 젠더 규범과 질서가 어떻게 재난의 효과를 젠더화하는지 밝힌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간주하려는 오래된 시도가 팬데믹 시기에 어떻게 용이해지는지 위에 제시한 세 가지 분석틀을 바탕으로 논증한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주의적 정책 대응의 방향과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한다. 본 연구는 사회의 젠더 질서와 규범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과의 연관성이 구성되는 방식을 국가별 자료와 재난과 젠더를 설명하는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살펴보는 시론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 II. 여성에 대한 폭력과 재난

### 1. 코로나19와 가정폭력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에 대한 공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조치들은 수많은 개인들을 집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 경제 영역의 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추산 및 이의 대응에 집중되어온 사회적 관심의 이면에서 재난과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의 우려를 불러온 배경이 되었다. UNFPA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건강과 사회경제적인 도전을 야기하는 “금세기 가장 커다란 세계적 공중보건의 위기(the largest global public health crisis in a century)”로 정의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의 건강 및 재생산 권리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the negative unintended consequences)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UNFPA, 2020). UNFPA의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이동제한 및 자가격리 조치는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관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팬데믹 기간 동안 젠더 기반 폭력과 성적 착취 및 학대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젠더에 기반한 폭력 피해는 310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UNFPA, 2020: 1-2). 돌봄 노동과 비공식 부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높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의 여성 비율이 높다는 점도 코로나19 시기 여성의 경제적, 공중보건적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이다(UNFPA, 2020: 2).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스트레스의 증가와 실업, 소득감소 등에 따른

경기침체는 가족을 둘러싼 부정적인 정서적 변화로 이어져 가정폭력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WHO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이 자가 격리가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인 가구 내의 긴장 수준을 높여 여성들과 소녀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의 성불평등 수준이 전체적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WHO, 2020).

해외의 사례들은 이러한 우려에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유럽, 아시아, 남미의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가정폭력 신고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보고되었다(The New York Times, 2020). 프랑스에서는 3월 17일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 이후 가정폭력 신고율이 전국적으로 30% 이상, 파리에서는 36% 이상 증가하였다(Euronews, 2020). 영국의 대표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인 Refuge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와 웹사이트 접속 건수는 이동제한 조치가 시작된 이후 각각 25%, 150%씩 증가하였고, 사이프러스, 싱가포르, 아르헨티나에서는 팬데믹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의 긴급 전화 사용률이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Euronews, 2020; UN Women, 2020). 캐나다, 독일,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가정폭력 발생과 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피난처 제공 요구가 모두 증가하였다(UN Women, 2020). 팬데믹 선언 이후 가정폭력 신고 및 발생이 증가하는 현상은 이동제한조치, 공적 활동의 금지, 외출 제한 등 코로나19 대응조치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증가하는 반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원기관들의 운영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UNFPA, 2020; UN Women, 2020; WHO, 2020).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조치들이 가정폭력 신고율을 항상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신고나 상담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UN Women, 2020). 이 경우 가정폭력 신고 또는 상담 건수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양상이 발견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조치가 시행된 이후 2주 동안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인 Telefono Rosa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전년도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uters, 2020; UN Women, 2020).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여성폭력 피해자 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건수도 비슷한 양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UN Women, 2020). 외출 금지령 및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긴급하거나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집

을 떠나기 어렵다. 따라서 가해자와의 안전한 분리를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신고율이 낮아질 수 있다. 스페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조치 이후 첫 2주간 가정폭력 긴급전화 신고율은 47%,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연락은 700% 증가한데 반해, 가정폭력의 경찰 신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The Guardian, 2020).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는 가해자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은 스페인의 상황에서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집을 떠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 이후에 가해자가 집을 찾아와 보복할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지난 4월 4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4만 50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4만 7378건에 비해 4.9% 감소하였다(여성신문, 2020). 이는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및 스페인의 사례에서처럼 가해자와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은 증가한 반면, 여성폭력 지원시설의 운영은 축소되었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고도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찾지 못하거나, 신고 이후 보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2017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최고조에 오른 이후 신고 건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연장선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아직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시기 한국에서 가정폭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시화되고 있는지 그 경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가정폭력 신고 건수의 감소 현상을 맥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째, 2019년 기준 한국의 가정폭력 신고율이 2%대로 극히 낮다는 점(김정혜 외, 2019), 둘째, 단기간의 신고 추이로 코로나19가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점(박순기, 2020),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의 체감으로 느끼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송란희, 2020)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각국의 사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가정폭력 신고 및 상담 건수는 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스페인의 사례에서처럼 오히려 신고율이 감소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아직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신고의 증감 추세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가정폭력은 특성상 그 증가세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고, 신고 또는 상담을 통해 폭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가정폭력의 전체적인 양상을 신고 건수 또는 상담 건수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분법적으로 성별을 다루는 양적 자료의 특성에서 이러한 실증자료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떠한 맥락에서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라는 결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지 못한다. 즉 코로나19 팬데믹과 가정폭력 증가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난과 젠더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재난이 야기한 폭력 발생의 위험이 어떻게 그리고 왜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지에 답해야 하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이 요구된다.

## 2. 젠더와 재난

페미니스트들은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족 관계와 사회 구조 속에 내재된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에서 출발하며 여성들의 불평등한 상태를 지속하고 남성 지배를 유지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드러내왔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이 우연히 발생한 개인적인 불운이 아니라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기반한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성평등 사회로의 이행을 저해한다는 관점은 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식되어 왔다. 1993년 UN 여성폭력철폐선언 결의안 채택, 2014년 이스탄불 협약 발효 등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세계적 차원의 노력이 전개되었고, 개별 국가들은 국제조약의 당사국으로 참여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젠더 기반 폭력은 현재까지도 국가, 계층, 인종, 종교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전세계적으로 만연해 있으며, 여성 살해, 여성 성기 절제, 명예살인 등 극단적 형태의 폭력이 자행되는 양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sup>2)</sup>.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과 성평등 사회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분리되거나 개별적으로 성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에 도전하고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젠더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식하고 접근하기 위한 노력과 별개로, 재난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오랫동안 젠더 관점이 개입할 여지가 적거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지진, 쓰나미, 집중호우,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나 기름유출, 방사능유출 등 인위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사망, 손실, 후유증 등의 피

2) UN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Fact everyone should know."  
<https://www.un.org/en/events/endviolenceday/>에서 2020.10.28. 인출.

해 측정 및 이의 복구는 젠더와 관계없는 성질의 것으로 여겨졌고, 재난 이후 폭력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여성들의 삶은 재난으로 인한 기반시설 및 주거공간의 파괴로 인한 빈곤의 결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여성들이 재난의 부정적인 효과를 왜 더 많이, 크게, 자주 경험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재난이 초래한 위기 속에서 건강, 안전, 사회적 권력, 나아가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는 여성들의 삶을 포괄하지 못한다.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이러한 재난 연구의 몰성성을 비판하며, 재난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관성을 실증적,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Fordham & Ketteridge, 1998; Enarson & Meyreles, 2004).

실증적 차원에서, 대형 재난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이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제출되었다. 2005년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와 2,500명 이상의 실종 및 사망자를 발생시킨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주요 피해지역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재난 이후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재난 이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98%) 높았고, 정서적인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 역시 35% 이상 증가하였다(Schumacher et al., 2010). 카트리나 이후 여성들에게 발생한 폭력 경험을 2년에 걸쳐 조사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카트리나 피해를 입은 420명의 여성들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허리케인 이전에는 인구 10만명 당 4.6명의 비율로 발생하였던 젠더 기반 폭력의 발생 비율은 재난 발생 1년 후인 2006년에는 인구 10만명 당 16.3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Anastario et al., 2009). 이어진 2007년 조사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인구 10만 명당 10.1명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태풍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5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3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2010 아이티 대지진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에서의 신체적, 성적 폭력 발생의 가능성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Weitzman & Behrman, 2016). 재난과 가정폭력 증가의 연관성은 질적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173명의 사망자와 수 천명의 대규모 이주를 낳았던 2009년 호주 빅토리아주의 대규모 덩불 화재 이후 젠더 폭력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인터뷰에 응답한 여성들은 모두 재난 이후 지역사회 내 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Parkinson & Zara, 2013: 30).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의 경우 여성들은 감염병에 걸릴 위험과 젠더 기반 폭력을 경험할 위험에 동시에 맞서야 한다. 2018년 8월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이 선포된 콩고 북부 키부 지역에서의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경험을 조사한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의 연구에서 여성들은 감염병에 걸릴 위험뿐 아니라 폭력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RC, 2019). IRC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을 돌봄 노동의 일차적 책임자로 여기는 사회적 규범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돌보고 관리할 책임을 여성들에게 부과하는데, 이는 여성들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이다. 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할 책임 역시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있으며, 여성들은 매일 물을 길어오기 위해 먼 길을 왕복하는 과정에서 강간,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 노출된다. 키부의 저개발된 지역적 조건은 여성들이 주거지와 음식을 구하기 위해 성적 착취나 학대를 견디게 하기도 한다. 또한 총기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불안정한 치안 상황은 여성들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나 관련 자원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여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IRC, 2019). 키부 지역에서 보여지는 에볼라 발생과 여성에 대한 폭력과의 연관성을 맥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개발되어 있는 국가적, 지역적 상황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에볼라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 이후 여성들을 감염병과 폭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구조는 여성을 돌봄과 가사노동의 책임자로 여기는 젠더 규범과 재난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여성들의 위치가 핵심적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국가에서 발생한 재난의 젠더화된 양상과 궤를 같이 하는 지점이다.

한편, 이론적 차원에서 여러 재난 연구들은 재난의 효과가 젠더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왜 재난의 부정적 효과와 파괴적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되며,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논증해왔다(Ariyabandu & Wickramasinghe, 2003; Enarson, 1999; Enarson & Pease, 2016; Wiest et al., 1994). 재난이 발생한 장소는 사회적 시스템, 사회적 관계, 사회적 역할이 교차하는 사회적 공간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구성물을 파괴하는 재난 발생과 그 이후 재건 과정에서의 경험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시스템, 개인이 맺은 사회적 관계, 개인이 기대받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Blaikie et al., 1994; Quarantelli, 1994). 예를 들어 기존에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지어왔던 요소들인 젠더, 인종, 계급, 연령, 장애 여부는 재난과 연관된 개인들의 경험을 다시금 규정짓고, 재난으로 야기된 개개인의 위험과 취약성은 기존의 사회적 시스템, 관계, 역할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Ariyabandu & Wickramasinghe, 2003; Fisher,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취약성 이론은 재난을 개인적 자원과 요인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성된 사회적 취약성의 결과로 보는 설명을 시도한다(Cannon, 1994; Fordham, 1999). 그러나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가 경험되

고 만들어지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젠더를 토대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젠더를 개인의 취약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개별적 요인으로 바라보는 접근 방식은 한계적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허라금은 아시아 여성의 재난 취약성에 대한 연구에서 가부장적 젠더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를 통해 재난과 젠더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함을 제시하고, 재난의 젠더 구성적 측면을 밝히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허라금, 2012). 재난과 젠더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난의 젠더화된 효과, 재난 시기 폭력을 통해 젠더 권력관계가 구성되고 작동되는 과정, 그리고 젠더화된 실천 속에서 다시금 강화되는 사회구조적 젠더 질서 및 규범을 종합적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는 허라금의 연구는 재난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여성폭력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작업에도 유용한 인식틀을 제공한다. 이처럼 젠더 관점에서 재난을 논하는 연구들은 재난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그 효과가 균질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고, 여성과 남성의 재난 경험을 다르게 구성하는 사회 질서와 그 함의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왔다(Enarson, 1999; Enarson & Pease, 2016).

젠더 관점에서 재난을 탐구하는 연구들은 재난의 젠더화된 경험, 효과, 결과를 이분법적 변수로서 성별에 따른 차이로 인식할 경우, 재난의 젠더화된 효과에 대한 적합한 설명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젠더는 개인이 타고난 고정된 속성이나 상태가 아니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행위를 통해 축적된 결과이다(Fenstermaker & West, 2002). 젠더는 사회 구조와 질서가 작동하는 맥락 속에 위치 지어져 의미를 획득하게 획득하는 동시에 젠더를 수행함으로써 젠더화된 사회는 유지된다. 젠더를 개인이 지닌 특성 또는 정체성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은 남성들과 여성들을 불평등한 권력 관계 속에 위치시키고 이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질서, 규범, 실천들의 젠더화된 역동을 인식하기 어렵게 한다(Anderson, 2005; Acker, 2006). 이런 점에서 Schwalbe (2014)는 젠더가 특정 개인을 통해 재현되는 것이 아니며 법과 제도, 문화적 믿음, 집단적 실천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젠더 질서(gender order)”라는 용어가 젠더에 대한 보다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젠더를 성별이라는 협소한, 개인적인 속성으로 파악하는 것은 젠더 기반 폭력을 개인 간에 발생한 상호적 폭력으로 부적절하게 정의하여 젠더 기반 폭력의 동기와 그 결과를 탈맥락화, 개인화시킨다는 한계를 노정한다(허민숙, 2013: 68). 젠더에 대한 협소한 이해는 재난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개인 여성과 남성의 행위로 축소시키고, 나아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집단적 트라우마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양해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재난의 부정적 효과와 재난으로부터

터 회복되는 속도의 젠더화된 양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처한 상황, 그리고 사회 구조에 내재된 젠더 위계와 규범, 담론이 어떻게 중층적으로 작동하면서 재난 경험과 그 결과를 젠더화(gendering)하는지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Ⅲ. 코로나19의 젠더화된 효과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위기에 대한 위계적 인식, 헤게모니적 남성성, 근대적 공사 이분법의 세 가지 개념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과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연관성에 대한 논증을 전개한다. 각각의 범주들은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연결되어 작동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하게 또는 유관한 방식으로 가해자의 폭력을 용인하고, 폭력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폭력경험을 드러내거나 도움을 구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의 부정적 효과를 성별화하고 성평등 가치의 실현을 저해한다.

#### 1. 위계화된 위기, 사소화되는 여성폭력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가정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기저에는 가정폭력을 사소한 일, 개인화된 사건으로 여기는 오래된 통념과 위계화된 위기 대응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재난은 개인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큰 충격과 손실, 후유증을 가져오는 사건이다. 재난은 신체적 상해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붕괴된 사회적 인프라는 빠른 재난 극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어렵게 한다. 재난이 심각할수록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커지게 되고, 따라서 재난으로 파괴되고 중단된 삶을 터전을 재건하여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성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은 최우선적 과제인 재난 복구의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등의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인 여성과 남성 사이에 발생한 개인적인 일, 여성의 잘못으로 초래된 일, 사소한 일, 외부의 개입이 가능하지 않은 가족 내의 일로 간주하려는 시도는 오랫동안 있어왔고, 비판받아 왔다. 재난이 불러온 파괴적 상황과, 집단적 공포 및 트라우마는 이러한 오래된 시도를 용이하게 하고, 재

난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을 양해하도록 여성들에게 요구하거나, 심지어 여성들의 잘못으로 여겨지게 한다. 2009년 호주에서 발생한 덩불화재 이후 재난의 복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대부분 재난으로 인해 정당화되었다. 화재로 인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남성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속에서 이들에 의해 발생한 폭력은 젠더 기반 폭력이 아닌, 재난으로 인한 상실감, 절망, 우울로 인한 우발적이고 일탈적인 사건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재난의 피해자인 폭력 가해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Parkinson & Zara, 2013: 31). 재난으로 인한 위기가 심각할수록 빠른 피해복구는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된다. 비정상적, 일탈적 행동은 위기가 지나가고 재난 상황이 복구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어 양해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취급되며, 여성에 대한 폭력 역시 그러한 사건들 중 하나로 인식된다.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재난 피해를 해결하는 주체가 모두 이러한 인식을 가진 상황에서 폭력 발생은 사소화되고 정당화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비난 받는다.

한편 재난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시설에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도 포함된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들은 재난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소, 의료서비스 제공, 법적 체계의 정비 등의 과제 앞에서 이차적인 것으로 여겨져 시의성과 중요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재난으로 인해 모든 것이 양해되고, 자신에게 발생한 폭력을 무시하거나 이해해야 한다는 압박을 경험하고, 폭력이 발생한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비난하는 상황에 더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기관도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폭력 경험에 대해 침묵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재난이 발생한 공간을 떠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감염병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 2. 재난으로 인한 남성성의 위기와 하이퍼 남성성

비재난 시기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불평등한 젠더 위계와 규범, 담론 속에서 발생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종속과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를 표현하고, 확인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여성에 대한 남성통제와 지배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Bunch, 1990; Hunnicutt, 2009). 따라서 여성폭력은 중

중 주변화된 남성성을 보상하고 젠더 권력을 획득하고 확인하는 맥락에서 발생하며, 계층, 인종, 연령 등 다양한 범주에서 주변화된 위치에 있는 남성들이 헤게모니적 남성성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나 이를 획득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종종 자신의 남성성을 폭력 등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여 여성들을 주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남성성과 권력에 대한 확인을 시도한다(Hooks, 1981). 코넬(Connell, R. W.)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남성지배와 여성종속을 보장하는 가부장제를 정당화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지속시키는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Connell, 1995). 남성성은 종속되고, 부차적인 여성성의 대립항에 위치지어지고, 남성성을 소유한 집단은 사회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그 자체적으로 권력을 소유하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되지 않으며 특정한 사회적 맥락과 위치속에서 작동한다(Hague, 1997). 기존의 젠더 위계를 뒷받침하는 사회 구조, 관계,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도전받지 않으며 덜 폭력적인 양상으로 발현된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 질서가 일시적으로 파괴되는 위기 상황에서 남성성의 헤게모니적 권력은 도전받게 되고, 위계적 젠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재난으로 인한 사회 기반시설과 시스템의 파괴 또는 운영의 중단,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 이로 인한 직장 및 주거의 변화와 경제적 손실은 삶에 대한 통제와 권력을 상실하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는 재난의 근원지와 전파 반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높은 불확실성과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 집단감염과 무증상 확진 사례는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집단적 공포를 낳았고, 사업장 폐쇄, 자가 격리 등 확진 이후 진행되는 필수적 조치들은 감염 이후 입게 될 개인적, 사회적인 손실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다. 코로나19가 가져올 손실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폐쇄, 수출입 규제, 출입국 제한 등 전례없는 국가적 조치는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에 충격파를 던지면서 세계 질서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실업, 고용 불안, 경기 악화의 경험과 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는 가족의 책임자, 경제적 부양자로서 남성성의 확립과 충돌하는 것이다.

재난이 야기한 남성성의 위기와 관련하여, 오스틴(Austin, D. W.)은 재난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촉진시킨다고 보고, 재난 시기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재구성된 남성성을 하이퍼 남성성(hyper-masculinity)으로 정의하였다(Austin, 2016). 오스틴은 재난으로 인

한 상실이 비재난 시기 남성이 소유하고 있었던 권력과 통제의 감각을 잃게 하고, 재난으로 인한 혼란은 기존의 사회 질서에 내재된 젠더 질서를 일시적으로 해체하여 남성성의 주변화를 초래한다고 설명한다. 이때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성들에게 지배와 통제의 감각을 다시금 획득하게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일부 남성들은 재난으로 인한 남성성과 지배력의 상실을 여성에 대한 폭력 행사로 상쇄시키려 시도한다. 재난으로 인해 주변화된 남성성을 폭력을 통해 확인하려는 시도는 재난 시기 또는 재난의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양해해야만 하는 일로 간주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보다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주변화된 남성성은 재난 시기 하이퍼 남성성으로 대체된다(Austin, 2016: 50-52). 이러한 오스틴의 설명은 코로나19시기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맥락에 대한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는 동안 개인의 이동권은 제한되었고, 건강권과 경제권에 대한 통제력은 축소되고, 감염에 대한 집단적 공포가 형성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주체됨의 상실과 기존의 남성성을 뒷받침하던 사회 질서에 야기된 혼란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위기를 가져오고, 이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남성성 획득을 시도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재난으로 인한 남성성의 위기와 하이퍼 남성성의 등장은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 남성과 재난에 관한 연구들에서 재난 이후 음주, 약물 사용, 스포츠 참여 등 남성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재난으로 인한 남성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사회적으로 인정 가능한 남성적 방식을 통해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inson & Zara, 2013; Zara et al., 2016). 재난 앞에서 경험한 존재의 무력함은 모두에게 깊은 고통이지만,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남성성의 가치와 충돌하는 것이다. 남성들은 재난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이를 인정함으로써 이상적 남성성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이중의 위험(double jeopardy)”에 처하게 된다(Zara et al., 2016: 46).

한편 남성성의 위기는 자주 사회적 위기로 치환된다. 남성성의 위기를 사회 일반의 위기로 인식하는 것은 재난 회복을 위한 실천들이 젠더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따른 이익과 긍정적 효과 역시 젠더에 따라 불균등하게 경험된다는 사실을 감춘다. 일례로 재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재난 복구 체계의 구상, 운영, 추진에 남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Luft, 2016). 주요 위원회나 모임의 일원에 여성이 참여한 경우일지라도, 여성들은 어머니로 간주되어 자주 중요한 위치에서 제외되고, 밤늦은 시간에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놓치게 되며, 재난 복구의 우선순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이슈가 제외되는 상황을 목도한다(Luft, 2016:

38-41). 이는 젠더와 재난의 맥락에서, 재난의 부정적인 효과 뿐 아니라 재난 이후의 복구 과정에서 획득될 수 있는 권력과 이익 역시 젠더 관계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됨을 보여준다.

### 3. 근대적 공사 이분법과 안식처로서의 집에 대한 통념

감염병이라는 코로나19의 특성과 안식처로서 고정된 이미지의 집을 상정하는 근대적 공사 이분법은 코로나19와 가정폭력 증가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는 코로나19의 감염, 전파,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주요 방역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생필품 구입 등의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 안에서 머물기를 권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범은 역설적으로 폭력 가해자와 함께 있는 시간의 증가로 이어져 가정폭력이 개입된 상황에서 피해여성들을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에 가둬버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킨다 (Bradbury-Jones & Isham, 2020; Kofman & Garfin, 2020; UN Women, 2020; WHO, 2020).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공간은 ‘집’이라는 전제에는 폭력이 개입된 상황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감염병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집에 대한 인식은 공적 공간을 전쟁터로, 사적 공간을 안식처로 규정하고, 공적 공간은 남성적 영역으로, 사적 공간은 여성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근대적 공사 이분법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집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라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또 다른 일터이자,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위험한 공간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근대적 공사 이분법은 ‘집’에서의 경험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여성의 경험이 배제된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구성된 관점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 (Pateman, 1987; Okin, 1991).

공사 이분법과 안식처로서의 집에 대한 고정관념은 성별 분업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일과 돌봄, 임금노동과 무임금 노동을 구분짓고 성별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는 근대적 성별 분업 인식은 여성의 종속된 위치를 유지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여성들이 수행하는 노동은 덜 가치로우며, 무급 또는 적은 임금을 받아도 되는 일이라는 인식은 여성들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정당화하였고, 돌봄 노동의 책임을 여성에게 부과하여 돌봄의 가족화, 돌봄의 여성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안숙영, 2018).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의 재생산 권리,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 등 주로 여성들

이 경험하고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어왔던 영역의 이슈들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속해 있음을 주장하고 드러내 왔다. 특히 가정폭력의 맥락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집은 죽음에 이르는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공간이다(Mazza et al., 2020; Piquero et al., 2020). 안식처로서의 집에 대한 인식은 가족 관계에 내재된 가부장적 위계와 젠더 질서의 작동을 가리고, 가족을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소화하고, 개인화하는데 일조한다.

성별 이분법적 돌봄 규범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폭력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여성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2018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콩고 키부 지역의 경우, 가족과 환자를 보살필 의무는 여성들에게 주어졌다(IRC, 2019: 5-6). 에볼라에 걸린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다른 가족들이 감염되지 않게 예방해야 할 책임까지 짊어진 키부의 여성들은 재난 상황에서 증가하는 폭력을 감내해야 할 뿐 아니라, 에볼라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책임까지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였다(IRC, 2019: 1). 돌봄의 여성화, 돌봄의 가족화는 가족 내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 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여성 의료진들의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70%가 여성인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건강과 복지, 안전에 관한 이슈 또한 젠더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UN Women, 2020). 영국 VAWG Helpdesk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여성 의료종사자들이 코로나 환자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들의 가족들의 불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 의료종사자들이 환자의 가족들로부터 경험하는 폭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에서는 의료복을 입은 여성 의료종사자들이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Fraser, 2020).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이슈의 젠더화된 양상은 팬데믹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동등하지 않으며 기존 사회질서에 내재된 젠더화된 기대, 질서, 관계의 영향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시사한다.



## IV. 결론 및 토론

팬데믹 시기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탐구하는 연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글은 재난으로서의 코로나19 팬데믹과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여성주의적 정책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실증자료와 젠더와 재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위기에 대한 위계적 인식, 헤게모니적 남성성, 근대적 공사 이분법의 세 가지 개념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가정폭력을 사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간주하려는 오래된 시도가 팬데믹 시기에 어떻게 용이해지는지를 살피고 팬데믹과 여성에 대한 폭력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개인의 삶과 사회질서에 중대한 위기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표준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재난의 위계적 속성, 코로나19의 감염병적인 특징, 그리고 사회구조적으로 내재된 기존의 젠더 질서는 상호적으로 연관되면서 팬데믹 시기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 위험을 증가시켜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을 젠더 기반 폭력이 아닌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간주하려는 시도는 코로나19 시기에 보다 용이해진다.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은 우발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사건으로 여겨져 정당화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비난받는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은 집단적 공포를 발생시켜 가족 내, 그리고 사회적 긴장감을 높이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삶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위기로 인식되어 폭력을 통해 남성성을 재확인하려는 시도를 촉진한다. 근대적 성별분업에 기반한 안식처로서 집에 대한 인식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젠더 권력관계와 이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맥락을 가리고 돌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는 여성과 남성의 경험과 재난 취약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성시킨다. 젠더화된 사회 규범과 질서로 인해 재난의 복구 과정에서 여성들은 직간접적인 배제를 경험하고, 이는 재난의 부정적 효과 뿐 아니라 재난 복구 과정에서의 이익 역시 젠더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그 연결고리는 각기 다른 역할과 기대를 부여하는 젠더

화된 사회 질서와 규범을 통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가정폭력의 맥락과 팬데믹 시기 가정폭력을 젠더와 무관한 사건으로 간주하려는 시도를 용이하게 만드는 요소들의 중심에 모두 젠더가 위치한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성평등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처럼, 팬데믹과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과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회 조직 원리로서 일상화된 젠더 규범과 젠더 질서의 정상성과 불평등성을 인식하고 이에 도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정책 대응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팬데믹의 경험, 그리고 팬데믹이 가정폭력과 연관되는 방식이 사회의 젠더 질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젠더 관점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19의 경험과 그 결과가 젠더화 되어있으며, 팬데믹이 가정폭력 증가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팬데믹이 불러온 심대한 영향력에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그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간과하거나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성평등의 증진에 기여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 집중된 재난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이 성평등 실현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그 노력의 첫걸음으로 지금까지 실행된 코로나19 연관 정책들의 설계와 추진, 실행 효과가 동등하게 안전하고 폭력에서 자유로울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성평등의 실현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팬데믹 관련 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평가하고, 돌아보는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EU 국가들의 노력과 조치를 분석한 유럽성평등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아일랜드, 스페인, 리투아니아는 팬데믹 시기 친밀관계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을 시작하였다. 여러 국가에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긴급전화는 “필수 서비스(essential service)”로 선언되었고, 거의 모든 EU 국가들에서 여성폭력 인식 제고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비대면 시대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절한 보호시설 준비의 미흡 등, 팬데믹 시기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

반적인 지원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EIGE, 2020). 한국에서는 아직 팬데믹과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 자체가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해외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대응에 시급히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관련 연구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사이의 연관성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팬데믹의 젠더화된 측면을 밝히는 선도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각국의 실증자료와 재난과 젠더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와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나, 팬데믹의 젠더화된 효과는 계층, 인종, 민족, 지역, 연령, 장애여부, 성정체성 등 다양한 맥락과 교차하며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다양한 실증연구들과 성평등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미래연구 포커스-COVID-19 이후 뉴노멀과 미래 전망. *Future Horizon Plus* 46(3·4).
- 김정혜·주재선·정수연·동제연·김홍미리·심선희·최현정·허민숙(2019).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박순기(2020). 코로나 19와 가정폭력 대응.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제4차 코로나 19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 19와 젠더 폭력-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자료집 토론회.
- 송란희(2020). 코로나 19와 가정폭력: 정책과 관점 모두의 부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제4차 코로나 19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 19와 젠더폭력-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자료집 토론회.
- 안숙영(2018).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제34권 2호. 1-32.
- 여성신문(2020.4.4.). “‘코로나19’ 이동제한령 내리자 가정폭력 늘었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828>에서 2020.10.28. 인출.
- 한국은행(2020). “코로나 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2020.6.29.).
- 허라금(2012). “젠더 관점에서 본 아시아 여성의 재난 취약성”. *환경철학*. 제13권. 65-90.
- 허민숙(2013). “가정폭력에 대한 젠더 통합적 접근: [가정폭력 실태조사] 비판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5권 2호. 62-89.
- Acker, J.(2006). Inequality regimes: Gender, class, and race in organizations. *Gender & Society*, 20(4), 441-464.
- Anastario, M., Shehab, N., & Lawry, L.(2009). Increased gender-based violence among women internally displaced in Mississippi 2 years post-Hurricane Katrina. *Disaster Medicine and Public Health Preparedness*, 3(1), 18-26.
- Anderson, K.(2005). Theorizing gender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research. *Sex Roles*, 52(11/12), 853-865.
- Ariyabandu, M., & Wickramasinghe, M.(2003). *Gender dimensions in disaster management-A guide for South Asia*. Colombo, Sri Lanka: ITDG South Asia.

- Austin, D. W.(2016). Hyper-Masculinity and Disaster: The reconstruction of hegemonic masculinity in the wake of calamity. In E. Enarson, & B. Pease(Eds.), *Men, Masculinities and Disaster* (pp.45-55).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laikie, P. M., Cannon, T., Davis, I., & Wisner, B.(1994). *At risk: natural hazards, people's vulnerability and disaster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radbury-Jones, C., & Isham, L.(2020). The pandemic paradox: The consequences of COVID-19 on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39, 2047-2049.
- Bunch, C.(1990). Women's rights as human rights: Towards a revis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12, 486-498.
- Cannon, T.(1994). Vulnerability Analysis and the Explanation of 'Natural' Disasters. In A. Varley(Ed.), *Disasters, Development and Environment*(pp.13-31). Chichester, UK: John Wiley & Sons.
- Connell, R. W.(1995). *Masculinities*. Sydney: Allen & Unwin.
- EIGE(2020). Covid-19 wave of violence against women shows EU countries still lack proper safeguards. <https://eige.europa.eu/news/covid-19-wave-violence-against-women-shows-eu-countries-still-lack-proper-safeguards> 에서 2020.12.4. 인출.
- Enarson, E. & Pease, B.(eds.)(2016). *Men, Masculinities and Disast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Enarson, E.(1999). Violence against women in disasters: A study of domestic violenc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Violence Against Women*, 5(7), 742-768.
- Enarson, E., & Meyreles, L.(2004).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gender and disaster: differences and possibi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24(10/11), 49-93.
- Euronews(2020.3.28.). "Domestic violence cases jump 30% during lockdown in France." <https://www.euronews.com/2020/03/28/domestic-violence-cases-jump-30-during-lockdown-in-france>에서 2020. 10.28. 인출.
- Fenstermaker, S., & West, C.(eds.)(2002). *Doing gender, doing difference: Inequality, power, and institutional change*. New York: Routledge.

dge.

- Fisher, S.(2010). Violence against women and natural disasters: Findings from post-tsunami Sri Lanka. *Violence Against Women*, 16(8), 902-918.
- Fordham, M.(1999). The intersection of gender and social class in disaster: balancing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17(1), 15-36.
- Fordham, M., & Ketteridge, A. M.(1998). "Men must work and women must weep": Examining gender stereotypes in disasters. In E. Enarson, & B. Hearn Morrow(Eds.), *The gendered terrain of disaster: Through women's eyes*(pp.81-94). Westport, CT: Praeger.
- Fraser, E.(2020).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VAWG Helpdesk Research Report* No. 284. London, UK: VAWG Helpdesk.
- Hague, E.(1997). Rape, power and masculinity: The construction of gender and national identities in the war in Bosnia-Herzegovina. In R. Lentin(Ed.), *Gender and Catastrophe*(pp. 50-63). New York: Zed Books.
- Hooks, B.(1981). *Ain't I a woman?*. Boston: South End Press.
- Hunnicut, G.(2009). Varieties of Patriarchy and Violence Against Women: Resurrecting "Patriarchy" as a Theoretical Tool. *Violence Against Women*, 15(5), 553-573.
- IRC(2019). Everything on her shoulders: Rapid assessment on gender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 the Ebola outbreak in Beni, DR C. <https://www.rescue.org/report/everything-her-shoulders-rapid-assessment-gender-and-violence-against-women-and-girls-ebola>에서 2020.10.6. 인출.
- Kofman, Y. B., & Garfin, D. R.(2020). Home is not always a haven: The domestic violence crisis amid the COVID-19 pandemic.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2, 199-201.
- Luft, R. E.(2016). Men and masculinities in the social movement for a just reconstruction after Hurricane Katrina. In E. Enarson & B. Pease (Eds.), *Men, Masculinities and Disaster*(pp.34-44).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azza, M., Marano, G., Lai, C., Janiri, L., & Sani, G.(2020). Danger in danger: Interpersonal violence during COVID-19 quarantine. *Psychiatry Research*, 289, 113046.
- Mckinsey&Company(2020). From thinking about the next normal to making it work: What to stop, start, and accelerate. <https://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leadership/from-thinking-about-the-next-normal-to-making-it-work-what-to-stop-start-and-accelerate>에서 2020.10.6. 인출.
- Okin, S. M.(1991). Gender, the Public and the Private. In D. Held(Ed.), *Political Theory Today*(pp. 69-90). Cambridge: Polity Press.
- Parkinson, D., & Zara, C.(2013). The hidden disaster: Domestic violence in the aftermath of natural disaster. *Australian Journal of Emergency Management*, 28(2), 28-35.
- Pateman, C.(1987). Feminist Critiques of the Public/Private Dichotomy. In Anne Phillips(Ed.), *Feminism and Equality*(pp.103-126). Oxford: Basil Blackwell.
- Piquero, A. R., Riddell, J. R., Bishopp, S. A., Narvey, C., Reid, J. A., & Piquero, N. L.(2020). Staying Home, Staying Safe? A Short-Term Analysis of COVID-19 on Dallas Domestic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5, 601-635.
- Quarantelli, E. L.(1994). Draft of a sociological disaster research agenda for the future: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empirical issues. Disaster Research Center.
- Reuters (2020.4.5.). "In Italy, support groups fear lockdown is silencing domestic abuse victims."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italy-violence/in-italy-support-groups-fear-lockdown-is-silencing-domestic-abuse-victims-idUSKBN21M0PM>에서 2020.10.28. 인출.
- Schumacher, J. A., Coffey, S. F., Norris, F. H., Tracy, M., Clements, K., & Galea, S.(2010).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Hurricane Katrina: Predictors and associated mental health outcomes. *Violence and Victims*, 25(5), 588-603.
- Schwalbe, M.(2014). *Manhood acts: Gender and the practices of domination*. Boulder, CO: Paradigm Publishers.

- The Guardian (2020.4.28.). "Women killed in Spain as coronavirus lockdown sees rise in domestic violence."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apr/28/three-women-killed-in-spain-as-coronavirus-lockdown-sees-rise-in-domestic-violence>에서 2020.10.28. 인출.
- The New York Times(2020.4.6.). "A new COVID-19 crisis: Domestic abuse rises worldwide." <https://www.nytimes.com/2020/04/06/world/coronavirus-domestic-violence.html>에서 2020.10.28. 인출.
- UHC2030(2020). Living with COVID-19: Time to get our act together on health emergencies and UHC.
- UN Women(2020). COVID-19 and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4/issue-brief-covid-19-and-ending-violence-against-women-and-girls>에서 2020.10.6. 인출.
- UNFPA(2020). COVID-19: A Gender Lens: Protect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https://www.unfpa.org/resources/covid-19-gender-lens#>에서 2020.10.6. 인출.
- Weitzman, A. & Behrman, J. A.(2016). Disaster, Disruption to Family Lif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Case of the 2010. *Sociological Science*, 3, 167-189.
- WHO(2020). Joint Leaders' statement - Violence against children: A hidden crisis of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who.int/news-room/detail/08-04-2020-joint-leader-s-statement---violence-against-children-a-hidden-crisis-of-the-covid-19-pandemic>에서 2020.10.6. 인출.
- Wiest, R. E., Mocellin, J. S., & Motsisi, D. T.(1994). The needs of women in disasters and emergencies. *Disaster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Manitoba.
- Zara, C., Parkinson, D., Duncan, A., & Joyce, K.(2016). Men and disaster: Men's experiences of the black Saturday bushfires and the aftermath. *Australian Journal of Emergency Management*, 31(3), 40-48.



Abstract

# COVID-19 and domestic violence: The gendered effects of the coronavirus pandemic

Hyojung Kim\*

Despite the concern about a potential increase in domestic viole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tudies that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ndemic and domestic violence from a feminist perspective are scarce. By examining the gendered effects of COVID-19 as a global disaster, this study aims to lay an academic foundation for feminist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To achieve this goal, first, I examine the patterns of domestic violence and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Next, I review the literature on gender and disasters focusing on how gendered norms and social order make the impact of disasters gendered. Finally, I demonstrate how the attempts to present gender-based violence as an incident or a private matter become easier in the COVID-19 pandemic, centered on three analytic frameworks of the hierarchical perception of disasters, hegemonic masculinity, and public-private dichotomy. In the conclusion, I argue that the policy responses to COVID-19 must be propelled without prejudice to women's right to be equally safe as well as to feel free from fear of violence, so that it contributes to promoting gender equality.

**Keywords :** COVID-19, Pandemic, Domestic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Disaster

---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